

남도 오디세이 美路 - 장성



천년고찰 백양사에 봄 소식을 전하는 '고불매(古佛梅)'

(장성군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을 비롯해 축령산 편백숲, 홍길동 테마파크, 천년고찰 백양사, '꽃길' 황룡강... '문불여장성'의 전통을 잇는 장성군은 문화와 음식, 스포츠, 치유 등 4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1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해 올해 착공하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을 앞둔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등도 장성의 미래를 환하게 밝힌다. 한편 장성군은 5월에 황룡강변과 홍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장성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 (5월 19~21일)를 개최한다.

# 기품 있는 전통, 활기넘치는 문화...가보고 싶은 '문불여장성'

하서 김인후의 선비정신을 만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필암서원'

탐매객 마음 흠치는 담홍빛 매향  
천년고찰 백양사 '고불매'

활 쏘며 새겨보는 민본 개혁의 꿈  
'홍길동 테마파크'와 청백리 白碑

오랜 코로나19에 지친 마음 위로  
최고의 치유 숲 '축령산 편백숲'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 "공부하는 공간과 제사지내는 공간, 최소한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서원이라고 합니다. 필암서원은 교류와 유식(遊息) 공간, 강학(講學) 공간, 제향(祭享) 공간, 크게 세 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여기는 격식 있는 서원이라 앞에 '놀 유(遊)자와 '실 식(息)자를 써서 교류와 유식공간이 있습니다."

김원영(64) 장성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필암서원 공간배치에 대한 설명이다. 필암서원은 대유학자 문정공(文正公)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 선생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사위이자 제자인 고암(鼓巖) 양자징(1523~1594)을 종향(從享)한 호남의 대표적 서원이다. 2019년 7월, 장성 필암서원 등 전국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목록(The 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됐다. 이를 계기로 '문불여장성' (文不如長城·학문으로는 장성만한 곳이 없다)의 맥을 잇고 있는 장성군은 지난해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활용사업'을 펼쳐 성리학 가치가 담긴 독특한 문화전통을 이으면서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익힐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홍삼문과 수령 200년생 은행나무를 지나 서원의 정문 격인 환연루(廓然樓) 밑으로 통과하려면 자세를 낮춰야 한다. '교류와 유식 공간'이다. 환연루 뒤편 담장가의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은 백송(白松)과 고매(古梅)가 돋보인다.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전시품 가운데 취흥(醉興)을 빌려 쓴 듯한 하서의 초서체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알고 보니 하서는 도학·절의·문장을 갖춘 큰선비이면서 28살에 '초서(草書) 천자문'을 펴내기도 한 초서의 대가였다. 또한 1531년 사마시에 합격했던 동기생 7명과 10년 후에 가진 모임을 담은 그림(계회도)에 붙인 초서체 제시(題詩)에서 하서 선생의 30대 젊은 시절 소

탈하면서 호기로운 또 다른 인간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홍길동 테마파크'와 청백리 백비(白碑)=장성은 '홍길동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요즘으로 치면 슈퍼 히어로인 홍길동은 조선 광해군 때 사상가인 교산(蛟山) 허균(1569~1618)이 한글로 지은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이다. 1990년대에 학술적 연구와 역사적 고증 결과 홍길동이 소설속 허구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이었다고, 태생지가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아치실)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복원된 홍길동 생가를 비롯해 홍길동 전시관과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궁장(백학정), 풋살 경기장, 산채 체험장, 한옥체험관(청백한옥), 곡간 자연밥상(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 캠핑족을 위한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캐리반) 등도 조성돼 있다. 최근 울도국 명소화 사업을 통해 생태학습장 연못 주위에 조명을 설치,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1km 가량 떨어진 금로리에 청백리(淸白里)의 상징인 아곡(莒谷) 박수량(1491~1554) 선생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묘

소 앞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가 세워져 있다. 아곡의 묘소를 지키고 있는 백비는 21세기 공직자들에게도 여전히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장성군삼계면 태생인 지지당(知止堂) 송흥(1459~1547)과 낙안현령을 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성 필암서원.

낸 아들 익경 또한 청백리에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장성군정을 이끄는 김한중 군수와 군 공직자들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 1일 박수량 선생 묘소를 참배하며 '청렴 행정'을 다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꽃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황룡강에서 아곡 박수량 선생 백비까지 4.9km 길이의 '청림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을 조성한다. 1단계로 황룡강-필암서원(1.6km) 구간을 2023~2024년에 추진하고, 2단계로 필암서원-백비(3.3km) 구간을 2025~2026년에 조성할 계획이다.

◇마음까지 치유하는 '축령산 편백숲'=여행자들은 4년째 접어들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축령산 편백나무 숲의 진정한 가치를 재인식했다. 질푸른 편백나무-삼나무 숲을 찾아 지친 마음을 치유한다.

한국전쟁 직후 황폐화했던 산이 한 독림가(篤林家)의 집념으로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이자 전국 최고의 삼림욕장·힐링관광지로 변모했다. 춘원(春園) 임종국(1915~1987) 선생은 사재를 털어 1956년부터 20여 년 동안 축령산 자락에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빗까지 제거하며 나무를 심었고, 가뭄이 들 때는 물지게로 물을 날라 어린 나무에 물을 줄 정도였다. 오늘날 대표적인 '치유의 숲'으로 손꼽히는 축령산은 그가 쏟은 땀방울의 결실인 셈이다.

축령산 편백숲 트레킹 코스는 그물망처럼 잘 구성돼 있다. 크게 모암마을과 금곡영화마을, 괴정마을, 대덕마을 등 4곳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1구간 모암마을-매남삼거리-금곡영화마을(9km·3시간) ▲2구간 금곡영화마을-장성 편백치유의 숲안내센터-괴정마을(6.3km·2시간 10분) ▲3구간 괴정마을-축령산 대덕휴양관-대덕마을 분기점(4.5km·1시간 30분) ▲4구간 대덕마을 분기점-통나무집 삼거리-모암마을(3.8km·1시간 20분)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현재 추암리 산 24-6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860m 길이의 '하늘숲길'이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구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최대 10m 높이에 데크길을 설치해 편백나무 숲 위를 걸으

며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데크길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계단없는 완만한 경사의 '무(無)장애 숲길'로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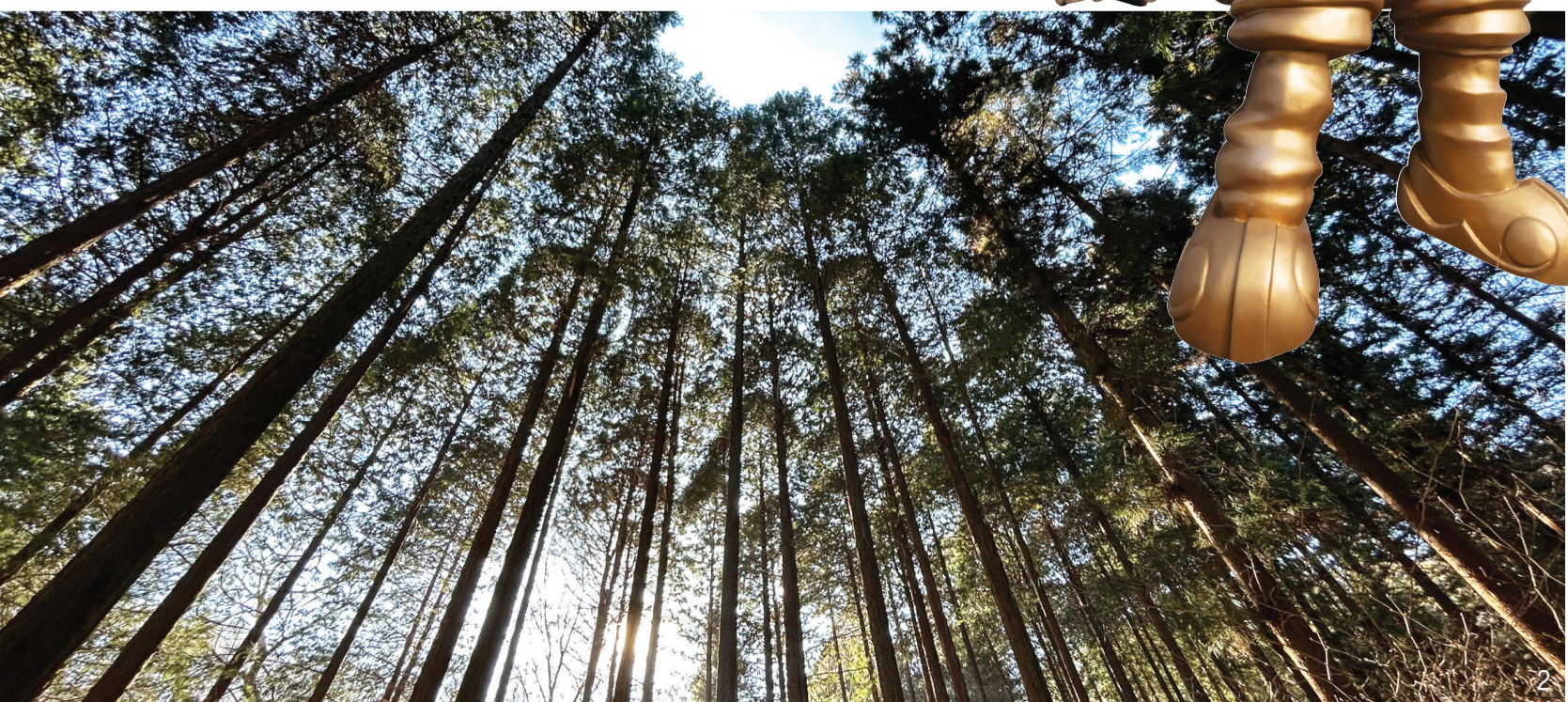
모암마을에서 계곡 길을 따라 산을 오른다. 축령산 금빛휴양타운을 지나 본격적으로 산길에 접어든다. 만남의 광장에서 왼쪽 길은 '물소리 숲길'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숲길 이름처럼 맑은 물소리가 귀를 간질인다. '숲내음 숲길'을 둘러싼 편백나무 숲은 이국적인 정취를 안겨준다.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치솟은 나무숲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해본다. 아직 겨울을 벗어날지 않았지만 여전히 숲은 질푸르다. 폐부로 피톤치드(Phytoncide)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다.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에너지가 더욱 충전되는 듯싶다.

◇천년고찰 백양사 '고불매(古佛梅)=고불총림(古佛叢林) 백양사는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이름났다. '템플 스테이'도 인기를 끈다. 일주문을 지나 좌우로 늘어선 우람한 갈참나무와 애기단풍나무 사이로 느릿하게 걷다가 상계루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4월이면 매표소-상계루 구간은 신록의 터널을 이룬다. 백학봉을 배경삼아 두 계곡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잡은 상계루의 풍경은 선경(仙景) 그 자체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그림같은 풍경을 보여준다.

사찰 강당 격인 우화루(雨花樓) 건물 이름은 흔들리는 꽃비를 연상시킨다. 마침 건물 바로 옆에 수령 350여년생 고불매(古佛梅·천연기념물 486호)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만개한 고매의 분홍빛과 고아한 매향... '화개' (花開)는 누구에게나 화두가 아닐지...

"부연이 알매 보고/ 어서 오십시오 허거라/ 천지가 권곤더러/ 너는 가라 말아라/ 아침에 해돌고/ 저녁에 달 돌는다/ 내 뎀안에 겸겸한 허공/ 새파란 별 뜨듯/ 붉은 꽃봉오리 샅샅 열리듯/ 아아/ '화개' (김지하 시인 '화개' 전문)

/글=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1. '홍길동 전시관' 앞에 설치된 홍길동 상. 2.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치솟은 축령산 편백나무숲.